

십일조 와 연보의 비교

내가 경험한 교회 거진 다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십일조 라는 뜻은 각자가 일한 그 소득에서 10%, 곧 10분의 일을 교에다 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만학에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는 다고 가르치는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금전상으로 어떻게 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점에 대하여 무어라고 했을까?” 가 항상 일상생활에 “최후”의 질문인데 그 극박한 질문에 가장 적합한 문답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에 따라서 금전상으로 주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금전상으로 들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기본적인 다섯가지 행위 중에 하나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기도, 성경공부, 교인들과 사귄(교제: 친밀한 거래를 이루는 일),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다른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점에 대하여 적합하게 물어볼 질문은: “성경에서 금전상으로 주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금전상으로 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에게 내라는 것과 구약 성경에서 금전상으로 유대인들 에게 내라는 것을 다르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이렇게 다른점을 알고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금전상으로 받지 않해야 될 감정에 타격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더 알고 싶으시면 “Joy of Giving-즐거히 주다” 라는 가르침이 90분걸리는 테이프와 CD. 로 나와 있고 또한 “십일조 드라마”라고 하는 Ernest L. Martin. 이라는 분이 쓴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사해보면 흔히 그 말씀안에서 생애적으로 구별된 것을 밝혀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며 어떤 부분이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고 기록되었고 또한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분명해 놓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매일 생활에 어떤 것이 올바르게 어떤 것을 행할수 있는가를 전혀 분간할수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현재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9). 이 세대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끝까지)에서 시작하여 교인들이 모두 들림반응으로 끝납니다 (살아 있고 죽어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주님을 궁중에서 영접함 - 데살로니가 전서 4:13-18).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이력서 (즉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는 것)가 교회에 편지한 것들 안에서 찾아볼수 있는데 그 편지들이 바로: 로마서, 고린도 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방향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 금전상으로 어떻게 기부하라는 것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두 과목에다가 인크를 잔뜩 들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교문에도 이 점에 잘 맞는 구절들을 찾아볼수 있으며 예수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일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에게 주는 메세지는 모세 법 아래서 행하는 것이 아닌것은 십일조는 모세법 아래 있을 때 하라고 한 계명들 중에하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십일조와 연보 사이에 다른점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비록 십일조 는 그리스

도인들 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연보 는 해당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에 개별적인 지체로써 우리의 믿는 형제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각각 자기가 그의 마음에 얼마가 되든지 스스로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정한대로 줍니다 (고린도후서9:7). 이 교문에서는 이 점에 대한비유를 심고 거두는 것에 비유해서 봉사의 기부를 강력히 권고 하는데 많이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6). 여기에 심일조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가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 어쩌면 그 책 제목을 축복의 반응 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기준하는 연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율법 아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일한 소득에서 내라고 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소득을 이룰수 있는 재료를 보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라고 했듯이 우리가 주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었을 해 주셨는가를 깨닫고,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더욱더 확실히 맛보고 알게 됨으로 우리가 주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비록 구약성경 때 일지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의 창을 열고 축복으로 보답해주시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틀어서 가르치기를 우리가 먼저 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으로 수도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어떤 종류로 해 주신다고 지정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만약 우리가 심으면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지만 그말이 기타 돈으로심으면 꼭 돈으로 거둔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것에 환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나 혹은 다름 여러봉사일에 돈으로 했으면 꼭 돈으로 축복을 받을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음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주어야 축복을 받는다 하는 의미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즐겨 내는 일에 지족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태만이 심일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는데 곧 그것이 일한 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내야 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수도없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진실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것을 더 많이 철저하게 강조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다 덧붙여서 심일조를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난의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 뜻은 금전상으로 구예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많은 교파들이 심일조를 하나에 성직자의 강요로 사용하는 것에 좀 지나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옳게 행하고자 하는 순진하고 열성적인 교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좀 더 짜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회 목사들의 수단 방법입니다. 이러한 목사들은 자기 교회에다가 적어도 심일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이라고 선포 합니다. 이렇게 억누르는 결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거히 내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하나님에게 "저물"을 드러 고난을 막는 의미로 하고 또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을까 하는 의미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아주 즐거히 내다가 그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는 것을 그만둔 이유는 하도 내라고 하는 억울함에 지쳤기 때문이며 혹은 진실로 심일조를 낸 형편이 못되기 때문 이며 또 예

쓰게 떨어져 기부한 돈을 망칙하게 쓰는 것을 보고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지로 주거나 아예 전여 주지도 않는 풍행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양편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이 풍행이 다 믿는 자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경험적으로 진리를 알게된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들어 맞고 이것이 바로 연습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경험한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 말씀(진리)을 잘못 배우면 사람들을 매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도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전상 주는 일에 대하여 꾀의식에 매어있고 그들에게 부당한 고민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말한 것 들 중에서 만약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심중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여러분도 이 발견한 보물을 또 다른 분들과 나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경제학으로 물고가기 때문에 돈과 물결에 대한 올바른 마음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큰 재산이 됩니다. 금전상으로 어떻게 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그것을 실험해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할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또한 도움을 받은 이가 받는 즐거움을 경험할수도 있고 그럼으로 모자란 것이 있는 자들을 도와서 우리모두 함께 단합해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십일조가 이스라엘에게 준 모세 법들의 일종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4장과 28장에서 말하는 구절을 가지고 십일조를 모세법 있기 전에도 년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내야 된다고 잘못 인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델기세대에게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 거기서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또 야곱이 여행중에 자기를 무사히 돌아오게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가 십분의 일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헌금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근신하고 성경적인 학식이 되지 못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기록이 아담과 이브 때 부터 대략 2000년 후의 일인데 그 전에는 십일조 내라는 것에 관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어떤 성경적 법으로 십일조를 내라고 해서 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돈을 무척 잘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단 한번 십분의 일을 년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유족의 소득에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법 원칙으로는 그렇게 했어야 올온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이기고 얻은 데에서 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서원 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사 자기가 가는 길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모세 때 십일조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모세 법 십일조는 누가 서원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고 만주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계명 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에게 뚜렷하게 제정한 십일조에 대하여 출애굽기에 들어서 둘째 해에 들어서기까지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 25장에 들어서 성소를 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기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찌니라"라고 지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십일조의 찬성자들에 설교를 흔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의 말엔 그리스도인으로써 구약성경 때 유대인들이 낸것보다 적게 낼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생각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낸 것으로 단정합니다. 십일조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부한 것을 이 기사에 다 기록 하려면 너무 벅참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분히 말할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냈으니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 사실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중에 누가 가축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그 해에 십일조가 면피되는데 그 이유는 십분의 일을 내는 자격이 적어도 소나 양이 10마리가 막대기아래로 지나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32). 어떤 농부가 소 8 마리밖에 없으면 십일조가 면피된다는 뜻입니다.

십일조를 내게한 가장 큰 이유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이 그들의 직무 이었고 그들은 농사 토지를 가지지 못하게 했으며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심김을 받는 백성들이 또한 심기는 자들을 보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교 안에서도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잘 보살피주는 사람을 또한 교인들이 보충해 주게끔 성경구절들이 인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1절부터 끝까지; 갈라디아서 6:6절 끝까지) 읽어 보세요. 또 구약 때에 십일조로 번공한 자들과 과부들과 선지자들, 기타, 사람들을 돕게 했습니다.

모세법이 내려오기 전에는 왜 십일조 법이 없었던 이유의 하나는 그때엔 성막 (위막)과 성전이 없었고 규칙적인 희생제 사도 없었고 (율법에 매일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지시한 짐승 수를 계산하면 일년에 700마리가 넘게 됨). 또 레위 족속의 제사장 직분도 없었으므로 보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것들이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꼭 십일조를 내야만 됩니까? 누구든지 자유의 마음에서 십분의 일을 주고자 하면 아무런 지장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 내라는 특별한 퍼센테지의 지시는 없습니다. 슬페이지 5 프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잘못 인도를 받고나면 종 종 감정적으로 억눌려서 십일조를 계속 내거나 아니면 한번 잘못 배운다는 것을 알고나면 아예 하나도 주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 6절 과 7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기를 올바른 마음씨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어떤 성도가 그 한계에서 많이 낼지라도 그의 액수가 매우 적겠지만 그는 많이낸 뜻이 됩니다. 한편 어떤 갑부는 천만원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각자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얼마를 내라고 지정한 지시가 없고 우리 각자가 자유로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를 주고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주라고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면 줄수록 더욱더 축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매우 즐기 십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재미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아-아 말라기 3:6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구절에서는 십일조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실것입니다. 정말, 이 구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로 십일조를 내게 하기 위하여 해야될수도 없이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 말라기를 누구에게 기록한 것입니까? 이 구절 3장 9절에 말씀이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나

라가 어느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일까요? 아닙니다, 말라기서는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게 기록한 것이고 특히 백성들을 잘못 취급하는 제사장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보실구절 16, 10-13; 21, 7 그리고 8). 말라기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인 에게 기록 한 것 처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학자다운 가르침이 못 될뿐 더러 그보다 더한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금전상으로 어떻게 내야 될까요? 이 응답을 찾을 첫 군데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고 어떻게 내야 한다는 마음 가짐에 대한 것은 9장 7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만약 누가 십분의 일을 내는 것이 좋다면 그것도 상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결정적인 단계를 넘어서, 새 눈으로 성경을 보면, 연보 곧 현금 하라는 것은, 진실한 가르침과 행위로 우리에게 실령한 것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데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근신한 무자(이것이 바로 심는 것)를 하는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을 가져 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을 다 도와 주지 못하더라도 꼭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고 권고 했고, 우리 각자가 이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라고 성경은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로써, 마음에서 일어나서 줄수 있는 까닭은 크나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에 있는 믿는 자들의 주는 마음씨를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의무적인 선을 넘어서 더, “우리가 바라던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5).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이면 우리는 각자 “값으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가지고있는 재산은 둘째치고)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이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위해 보살피 주신다는 것 을 알면, 우리가 진실로 즐겨히 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번역: 김영순

편집: 김정숙

